

서평

Population Process and Dynamics: For Koreans in Korea and China

Doosub Kim & Barbara A. Anderson(eds.), 1997, Hanyang University Press

최진호*

지난 30-40년간은 한국사회의 거대변동기였다. 놀라운 경제성장 덕택에 외형적으로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가가 아닌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해방 이후 우리 손으로 산업화를 시작한 지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산업화는 뒤늦게 시작했지만 정보화는 앞장서자'는 구호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정도로 한국사회는 커다란 변동을 겪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동 못지않게 인구현상도 심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불과 이삼십 년 전만 해도 자녀수가 4-5명인 것이 보통이었는데 지금 결혼하는 세대는 아이를 둘 아니면 하나만 낳는다. 그런가 하면 나이 70이 넘어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정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망률이 낮아지고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거대변동의 와중에서도 아이를 하나만 낳는다면 꼭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강한 남아선호의 영향으로 현재 출생시 성비가 자연상태의 출생시 성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남자와 여자를 섞어서 짝을 지어 보면 여자가 모자라 남자끼리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는 이미 진부한 이야기에 속한다. 이들이 가까운 장래에 결혼적령기에 이르면 짝을 찾지 못한 남자들이 남아돌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사람들은 좀더 합리적이고 타산적으로 생각하거나 행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에 현대사회에서 남아를 선호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일지 모른다. 남아가 여아보다 많이 태어남으로써 남아가 자라면서 겪을 새로운 어려움이 대두되겠지만, 가족제도면에서나 사회생활에서 한국사회는 남성위주로 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를 선호한다면 이 역시 합리적인 행위양식의 하나일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전통이나 문화의 속성은 쉽사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독특한 문화양식의 하나인 남아선호는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한국인의 의식과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칠거라고 말할지 모른다. 어느 견해가 맞는지, 아니면 둘 다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남성위주인 한국사회에 남아선호가 뿌리깊게 남아 있어 출산과 사망으로 대표되는 인구현상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아선호사상이 오늘날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출산과 사망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는 동일한 현상을 한국사회 아닌 일본, 미국, 중국 등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 또 동포이면서도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인에게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까? 사는 곳은 달라도 한국인에게서는 동일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적 환경보다도 한국인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문화적 영향이 더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국인이라고 해도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른 출산과 사망유형이 나타난다면 이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 이런 물음은 급격한 사회변동의 흐름 속에서도 전통적인 문화요인이 인구현상에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고, 언젠가 남북통일이 되어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인구구조와 과정 속에 통합될 것에 대비해야 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질문들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과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Korean Chinese, 韓人)의 출산행위와 사망의 양상에 어떤 동질성과 이질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함의는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다. 1996년 한국, 중국, 미국, 태국 등의 학자들이 참가한 국제워크샵에서 발표된 논문을 한양대학교 사회학과의 김두섭 교수와 미국 미시건 대학 사회학과의 바바라 앤더슨 교수가 공동 편집하여 한양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이 책은 성비, 유아사망 등 인구학의 핵심적인 주제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라는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의 출산과 사망에 사회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전

통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앞에서 제기한 의문에 대한 본격적 탐구의 서장을 열고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기존의 이차자료뿐만 아니라 중국의 센서스 원자료를 활용하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출산과 사망 등 인구현상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서들보다 돋보이고 있다.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연구하는 경우 자료의 어려움이 덜하지만,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국인의 경우 각 사회에서 소수민족에 속하고 그 절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경험적 원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또 표본을 통해 조사를 하더라도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대표성이 확보된 표본조사는 불가능하기 일쑤이다. 그렇지만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중국 밖의 외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1990년 중국 센서스 원자료를 직접 분석하여 중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성비, 교육수준, 유아사망률, 결혼연령 등 여러 인구현상에 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출산과 사망, 그리고 태국, 자메이카 등 여러 사회의 성선호와 출산에 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 우리는 비교시각(comparative perspective)에서 한국인들의 출산과 사망에 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번째 부분은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인구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남아선호에 관한 세 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김두섭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센서스 원자료를 분석하여 양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출생시 성비의 추세와 출생시 성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출생시 성비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도지역의 출생시 성비가 높아지고 있는 데 주목하고 이를 이 지역의 역사적·정치적인 특성과 결부시켜 해석하고 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경우 출생시 성비가 자연상태에서 출생시 성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90년 센서스가 실시되기 직전 18개월만을 따로 떼어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서도 출생시 성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두섭 교수는 이를 중국의 개방과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의 도입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이성용 박사와 태국 출라롱콘 대학의 리마논다 교수가 쓴 글들은 각각 자메이카와 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남아선호현상과는 전혀 다른 여아선호 혹은 무성선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여아보다는 남아가

선호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는데, 우리와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전혀 다른 자메이카에서는 오히려 여아선호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리마논다 교수가 분석한 태국의 경우, 불교가 숭상되고 오직 남자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승려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가족제도, 경제적인 이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전혀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여자만의 독특한 역할과 기능이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태국에서는 특별히 남아 혹은 여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아 한국과 같은 아시아 지역에 속하면서도 출생시 성비가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첫번째 부분 세 편의 논문을 통해 각 사회마다 출생시 성선호가 다양한데 한국인에게서 발견되는 남아선호는 하나의 독특한 전통적 문화양식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이라는 상이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한국인들의 출산에 관계된 의식과 행위양식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임이 확인된다.

두번째 부분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서울대 권태환 교수는 한국인들의 해외이주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함께 중국내 한인이주의 역사와 한인공동체의 특성을 고찰하고 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길림성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한인공동체를 유지해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국어를 보존·사용한 데 있다. 중국내 한인들은 한국어를 일상언어로 쓰면서 한인정체성과 문화적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교적 전통, 친족간의 강한 유대, 그리고 한인들만의 특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측면들을 보존해왔다. 그러나 권태환 교수는 중국사회가 개방과 근대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인구이동이 활발해지고, 산업사회로 변모해 가는 중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녀교육과 직업활동이 변모하면서 중국내 한인사회는 해체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중국내 한인공동체의 형성과 변모를 분석한 글에 이어 중국의 인구학자들이 중국 센서스를 통해 중국내 한인들의 지리적 분포, 다른 소수민족과 구별되는 문화적 특성, 그리고 한인들의 높은 남성사망률 등을 분석하고 있다. 세 편의 글을 통해 한국사회의 한국인들에게서 발견되는 높은 교육열이 중국내 한인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산력수준도 중국내 다른 민족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권태환 교수의 글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한인 남성들의 지나친 음주습관을 비롯한 독특한 생활문화가 한인남성들의 높

은 사망률에 기여하고 있음도 중국학자들에 의해 분석되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한국과 중국의 한인들의 성선호, 출산, 유아사망, 교육, 그리고 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미시건 대학의 바바라 앤더슨 교수와 류진연은 중국내 한인들의 성비와 유아사망률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연변지역의 한인들과 다른 민족들의 출생시 성비와 유아사망률을 거주지, 가족구성 등 여러 사회경제적인 변수들을 고려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여러 발견과 논의 가운데 하나는 한인들의 경우 남아유아사망률은 다른 민족들보다 낮으나 여아유아사망률은 오히려 높다는 것이다. 앤더슨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출생 순위별로, 거주지역의 특성, 의료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분석하고 있다. 뒤이어 미시건 대학의 존 로매니 교수는 연변지역에서 의료의 질적·양적인 여건이 성선호와 유아사망률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밝히고 있다.

마지막 세 편의 글은 김태현 교수에 의한 한국에서 성선별적인 인공유산이 출산력수준에 미치는 영향, 은기수 교수에 의한 첫 출생시까지 결혼, 임신, 유산 등의 다양한 연속형태(sequence)가 첫 출산시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시건 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김정석에 의한 한국과 중국 연변지역의 한인들의 성선호, 가족구조가 성별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글이다. 김태현 교수와 은기수 교수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유산이나 출산과정이 출산력 혹은 첫 출산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비교연구의 영역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석은 교육지위 획득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모델을 검증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강한 남아선호가 자녀들의 성별구성을 통해 자녀들의 교육지위 획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한국과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아직도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문화요소가 강하게 남아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처해 있는 사회환경의 영향에 따라 이질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측면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현상의 역동성이 사회경제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음을 시사받는다.

이 책에 수록된 비교연구는 단순한 비교연구가 아니라 일종의 자연과학적 실험과 같다.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실험이 거의 불가능한데, 한국과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출산과 사망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는 사회경제

적·문화적 여건이 상이한 상황 속에서 출산행위와 사망양상이 어떻게 수렴되고 또 구분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일종의 의사실험을 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구현상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한국인끼리 그리고 다른 민족과의 비교연구가 필수적임을 알려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남북이 통일될 경우 상이한 사회체제내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에 의한 서로 다른 인구현상과 그 요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구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인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인구현상에 관심있는 학자뿐만 아니라 사회변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과학도들이 읽어보아야 할 책으로 평가된다.